

법무부, 인권위 권고안 대부분 거부

사형제·국보법 폐지 등 유보키로 北 인권 증진은 지원...논란 일 듯

사형제·국가보안법·보안관찰제 등의 폐지가 유보되고 소수자 및 사회권 분야 정책은 강화되는 한편 북한의 인권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정책 로드맵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National Action Plan)' 정부 초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은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NAP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그간 각 부처 실무진과 학계와 시민 사회,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인권 NAP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와 국보법 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정했다. 사형제의 경우 정부 초안은 "헌법상 사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형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를 지원한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국보법은 "해석·적용에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하되, 개폐 문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안보 형사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역시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보안관찰제도 남용방지책을 마련해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인권위가 인정할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의 경우 정부 NAP 초안은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는 지난해 4월 국방부가 구성한 민간공동연구회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달께 검토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 초안을 이와 함께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지원 분야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국내 NGO 활동 지원'을 포함시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은 인권위 안에는 없었다. 정부 NAP 초안은 이 외에도 ▲자유권 보호 증진 ▲사회권 보호 증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관심·배려 ▲인권교육·협력 및 국제인권규범 이행 등 6개 부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3월말~4월초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어 구사능력은 北서도 권력 지름길

북한에서는 영어 구사능력이 핵심 요직에 오를 수 있는 주요 수단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의국 어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한 신은희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3일 서울 조선호텔 코스모스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초창간담회를 통해 "북한에서도 영어가 곧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에서 영어를 잘 하면 핵심 요직에 많이 들어간다"며 "밖(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라는 생각에 경쟁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평양의국어대학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두 가지 외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외국어) 전문요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春節은 폭죽으로 시작

중국 최대 전통 명절인 춘제(春節·18일·설날)를 앞두고 12일 산둥성 지난시의 한 시장에서 주민들이 폭죽을 고르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뉴욕 '트럼프타워' 한국서 사전 청약

내달 당첨자 확정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 맨해튼 소호지역 중심에 건설하는 호텔식 아파트 '소호 트럼프타워'가 미국 내 분양에 앞서 한국에서 사전 청약 받는다고 밝혔다.

한국 내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부동산투자관리회사 KOSA(대표 한상수)는 12일 (현지시간) 413실 규모의 소호 트럼프타워는 맨해튼 24번가의 소호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45층 높이로 허드슨강, 엘리아어스테이트빌딩과 자유의 여신상을 조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KOSA는 한국에서 이달 말까지 사전청

약을 받으며 트럼프사가 청약서류를 검토, 내달 당첨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인 조정기에 있지만 최근 맨해튼 지역은 증권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청약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청약해 볼 경우 투자경험을 쌓는데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KOSA측은 밝혔다.

트럼프사의 대표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적 권위의 호텔 건축사가 설계를 맡아 예술과 쇼핑의 거대한 소호지역의 또 다른 명물이 될 것"이라며 "회사에서 직접 임대 관리를 맡으므로 좋은 수익률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이라크 폭탄 테러...울부짖는 시민

이라크 바그다드의 도매시장에서 지난 12일 차량 폭탄테러 2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59명이 숨지고 140명이 다쳤다. 불타는 건물 앞에서 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라크 바그다드의 도매시장에서 지난 12일 차량 폭탄테러 2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59명이 숨지고 140명이 다쳤다. 불타는 건물 앞에서 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딸기 덩불 덕에

3,600m 상공에서 추락 스카이다이버 기적 생존

뉴질랜드의 한 스카이다이버가 낙하산이 영커 3천600m 상공에서 지상으로 곧바로 떨어졌지만 딸기나무 덩굴덕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한 장면을 촬영한 충격적인 비디오가 12일 TV에 방영됐다.

마이를 홀메스(25)라는 스카이다이버는 작년 12월12일 뉴질랜드 북부 노스 아일랜드에 있는 타우포호수상공에서 점프 도중 추락했으나 살아 남아 언론에 대서특필했던 인물. 추락장면은 그의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와 동료 조나선 김이 촬영했다.

비디오는 홀메스가 낙하산이 영커 나선형으로 돌면서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주 낙하산을 버리고 보조 낙하산으로 바꾸

려 애쓰는 모습을 담고 있다. 동료 다이버 김의 카메라는 홀메스가 지상으로 내리 쫓히는 모습을 담았다. 홀메스 자신의 카메라에는 왼쪽 손목의 고도계로 고도를 체크하면서 뒤로 돌아 등뒤에 진 낙하산의 문제를 찾아 바로 잡으려는 모습이 찍혔다. 홀메스는 비디오에서 아래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급격히 커지면서 화면을 가득 채운 후 시커멓게 변하는 추락 마지막 순간 직전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소리친다.

이어 충격으로 부러진 갈비뼈에 찢린 한쪽 폐로 숨쉬려 애쓰면서 내는 낮은 신음소리가 들린다. 다른데 다친 곳은 심하게 부서진 발목 관절뿐이다. /연합뉴스

'발다로의 연인' 유골, 영원히 함께 한다

伊 과학자들 박물관 보존키로

세익스피어의 대표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탈리아 만투아 인근에서 서로 꼭 겨냥은 채 발견돼 꽤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발다로의 연인' 유골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이탈리아 과학자들은 12일 만투아 근처 발다로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발다로의 연인 유골을 그대로 들어내 박물관에 보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인의 유골은 하나씩 옮겨져 재조합하

는 방식이 아니라 주변 흙까지 통째로 들어낸 상태로 박물관에 보존될 예정이다.

유골을 발견한 고고학 연구팀의 엘레나 메노티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이들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파악한 사실이 얼마 되지 않는 않지만 이들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고고학자들은 유골의 치아가 손상되지 않은 점에 미뤄 이들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낮잠 30분, 보약보다 낫다!

하버드대 연구팀 분석 결과 '심장병 사망 위험 줄어'

낮잠이 심장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과 그리스 아테네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의학 전문지 '내과학 기록(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최신호(2월12일자)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이상씩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은 낮잠을 전혀 자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3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논문의 선임저자인 하버드 대학의 암예방학-역학교수 디미트리오스 트리코폴로스 박사는 대부분 50대인 그리스인의 건강한 성인 2만3천681명(20~86세)을 대상으로 평균 6.3년에 걸쳐 실시

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어쩌다 한 번씩 낮잠을 자는 사람은 심장병 사망위험이 12%밖에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코폴로스 박사는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이었으며 주로 은퇴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직장 다니지 않는 남자는 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낮잠이 직장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낮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과식하고 운동을 덜 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국제적심

두려움 없는 마음, 건강한 삶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국제적심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심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심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